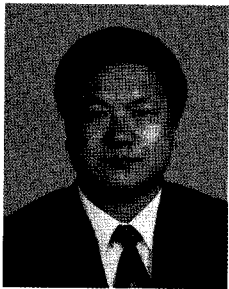




대팻집나무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 ▶ 과명 : 감탕나무과
- ▶ 학명 : *Ilex macropoda*
- ▶ 영명 : Macropoda Holly, Largepetiole Holly
- ▶ 한명 : 鬼兜靑,
- ▶ 일명 : あおはだ

10월부터 염주 크기의 붉은색 열매가 한 달 이상 나무에 매달려 매혹적이며 완전히 익으면 새들의 먹이로 훌륭한 자원이다.

나무의 이름은 목재 조직이 치밀하고 무거우며 건조 후에도 갈라지지 않아 대팻집을 만든다하여 붙여졌는데 최근 들어 관상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1. 생태적 특성

속리산, 계룡산 이남의 표고 1,300m이하 산복과 산기슭에서 자생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수고 15m, 직경 30cm에 달하며 지리적으로 일본에서는 구주에서 북해도까지 분포하고 중국에도 자생한다. 초기 생장은 빠른편이며 그늘에서도 생육하는 중용수이고 건조지에서도 잘건디나 토심이 깊고 비옥한 곳에서 왕성하게 생육한다. 추위에는 어느정도 견디 서울지방에서도 생육은 가능하나 대기오염에는 약한 편이다.



▲ 대팻집나무

2. 형태적 특성

줄기는 곧게 자라며 어린 가지는 회갈색으로 약간의 각이 졌다. 잎은 어긋나고 길이 3~10cm, 넓이 3~4cm의 타원형으로 뒷면 맥위에 털이 있다. 꽃은 암수 딴 나무에 피는데 잎의 겨드랑이에 모여서 5월에 백색의 작은 꽃이 핀다. 열매는 지름 7~8mm의 핵과로서 10월에 적색으로 익는다. 유사종으로 잎의 뒷면에 털이 전혀 없는 것을 민대뺨집나무(for. *pseudo-macropoda*)라고 하며 지리산, 조계산과 제주도 에 자생한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이 나무는 잎과 수형이 아름답고 옆주 크기의 붉은 열매가 잎이 지고난후에도 달려있어 매우적



▲ 대뺨집나무



▲ 대뺨집나무

이고 새들의 먹이식물로 공원이나 학교 숲에도 식재하면 아름다운 열매와 새들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종이다.

4. 번식법

번식은 주로 파종과 삽목, 접목으로 한다

○ 파종

- 채종 및 저장

10월에 성숙하는 종자를 채취하여 과육을 제거하는데 수선법(水先法)이 좋으며 정선한 후 바로 젖은 모래와 혼합하여 저온에 저장하거나 땅속에 매장한다. 보존 년 한은 2~3년 가능하다.

- 파종

발아율은 35%내외이며 발아촉진 처리는 파종 전 1~2일간 물에 담갔다가 파종하며, 1㎡당 10g 정도의 종자를 흩어 뿌린다. 발아는 2년후 봄부터 한다. 장기간 동안 휴면하는 종자로 파종상은 건조한 토양을 피하고 파종 후에는 해가림을 설치한다.

○ 삽목

충실한 가지를 선정하여 해빙과 동시에 전년지를 삽목하거나 여름에 삽목 할 때는 그해에 자란 가지를 길이 10~15cm로 하며 전년지를 약간 붙여 삽목 한다.

○ 접목

암수 딴 그루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대량으로 번식코자 하면 많은 열매가 달리는 개체를 선발하여 충실한 접수를 채취하여 대목에 접목한다.

5. 그 밖의 용도

목재의 조직이 치밀하고 무거우며 건조 후에도 갈라지지 않아 대뺨집을 만드는데 이용하고 조각재로도 가능하다. 